

## ‘아덴만 여명작전’ 이후

# 金국방 “생포 해적 국내송환…재판할 것”

“韓선박 공격 첨보…한국인 보복살해 위협도”

삼호주얼리호 오만해역 근접…선장 수술 지연

### 해적 사체 소말리아 인계될 듯

김관진 국방장관은 24일 청해부대가 생포한 해적 5명은 “국내 송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그들이 밝힌 뒤 “(국내에 도착하면) 일단 재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들의 국내 이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법무부와 해경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해적들이 한국선박을 공격할 것으로 첨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첨보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아덴만 해역에 다니는 선박들이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선사들이) 보안원을 탑승하고 선박내 안전실(안전구역)을 확보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군수지원함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소말리아에 납치된 우리 어선 ‘금미호’와 생포 해적과 맞교환 방안에 대해서는 “금미호를 납치한 해적과 이번 해적들의 소속을

비교해봐야 할 것”이라며 “생포 해적들을 심문하면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소말리아 해적 8명의 사체는 조만간 소말리아 정부 쪽에 인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핵심소식통은 24일 “현재 정부가 해적 사체 8구의 처리문제를 오만 주재 소말리아 대사관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인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레이터통신은 23일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군의 공격으로 8명의 동료 해적이 숨진 데 대한 보복으로 앞으로 한국인 선원을 인질로 잡으면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모하메드’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해적은 이날 레이터 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한국 선박을 납치하면 돈을 요구하지 않고 선박을 불태우고 선원을 죽일 것이다”라며 “우리는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은 나의 둘째를 살해했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호주얼리호는 오만 해역에 근접했으나 생포 해적과 해적 사체 처리 문제를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려 목표지인 무스카트항에 조기 입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에 참석, 국회 국방위원회를 상대로 이번 작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4일 “청해부대(최영함)는 삼호주얼리호를 정상적으로 엄호, 호송 중으로 오만 극해에 도착하기 직전”이라며 “생포 해적과 해적 사체 처리를 협조 중이라 27일이 돼야 입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출작전 중 총상을 입은 석해균(58) 선장의 추가 수술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연�되고 있다. 정부대응팀 양제현 서기

관은 24일 살랄라 술탄 카부스 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 선장의 혈소판 수치가 다소 떨어져 수술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2차 수술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1차 수술을 통해 석 선장의 몸에서 총 3발의 총탄 중 1발을 제거하고 외인 팔과 양 다리 등 골절상 부분에 길스를 했다. /연합뉴스

## ‘아덴만 작전’ 보안 유지해야… 세부노출 비판론 고개

### 軍 시간대별 상황 소상하게 언론에 브리핑

### “향후 유사작전에 지장” 부적절 목소리 높아

군 당국이 ‘아덴만 여명 작전’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세부 군사작전 사항까지 불필요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4일 제기됐다.

해적에게 납치된 인질 21명을 모두 구출하는 빛나는 전과는 인정하더라도 작전 종결 후 보안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작전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지난 21일 삼호주얼리호 인질 구출작전 성공 이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작전 당일 새벽 4시58분(현지시간) 고속단정 하선을 시작으로 13명의 해적을

모두 퇴치하고 인질 21명을 구출할 때까지 시간대별 작전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

군은 고속단정 2척을 내리는 동안 최영함이 함수를 돌려 해적들의 눈을 피했고, 링스헬기와 최영함(4500t)의 선제적 기동으로 해적을 기만했다는 내용도 설명했다.

최영함이 특정주파수인 ‘VHF 상선검색 망(CH-16번)’으로 삼호주얼리호를 호출해 구조작전이 시작된다는 내용은 한국어로 알렸다는 사실과 미 해군의 해상초계기(P-3C)가 선미와 선교, 중갑판의 해적 동

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신 내용도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 핵심 관계자들의 브리핑에서도 이런 내용 등이 소개됐다.

MP5 9mm 기관단총 등 해군 특수전요원(UDT/SEAL)의 무기제원이 고스란히 공개됐고, 요원들의 선박 진입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드러났다. 그간 공개하기 꺼렸던 작전 사항 등이 일부 포함된 것이다.

선장이 엔진오일에 물을 타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면서 시간을 버는 기지를 발휘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도 해적들이 다음에는 미리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다.

네이준 김모씨는 국방부 계시관(국방정책, 나도 한마디)에 올린 글에서 “소말리아 여명 작전은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칭찬하면서도 “언론보도를 보자니 걱정이

무착된다. 왜 각종 무기들의 제원이 낱낱이 공개되거나, 합정 최고속도가 얼마나 고속단정의 속도는 얼마나 헬기는 어떻게 무장했는지 등 그러한 정보들이 적에는 얼마나 유리한 정보인지 모르느냐”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희창 대표도 2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선원 구출 과정을 공개한 데 대해 “우리 군의 특수작전 방식이 공개되면 향후 구출작전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자제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 때는 열강상장비(TOD) 동영상은 적시에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군이 이번에는 작전 이를 만에 작전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동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이를 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봇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차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치자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 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엔지 방수, 비단재 전문생산업체  
**이엔지미화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

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균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다 결국 죽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부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

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

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균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다 결국 죽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부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

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죽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

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

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죽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콧병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삼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기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죽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은 주재료인 침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고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가침을 면주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침느릅나무 뿐만 아니라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죽농증을 비롯한 각종 콧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http://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법 제09024-충-473호

## “해적 로켓, 죄영함 겨냥” 아찔

저격수 증언…“선장, 대항했다는 이유로 총상”

지난 21일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개시 직후 해적 1명이 우리 청해부대 구축함 ‘최영함’(4500t급)을 향해 휴대용로켓(RPG-7)을 겨냥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부대 특수전요원(UDT)으로 구출작전 당시 저격수 임무를 맡은 박 모 중사는 “공격팀이 선박으로 올라가도록 엄호사격을 하던 중 해적 1명이 RPG-7을 죄영함 쪽으로 겨냥하는 것을 식별하고 조준사격으로 무력화했다”고 증언했다.

박 중사는 “만약 한 발이라도 우리 쪽으로 날아왔다면 아군 피해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 순간이 정말 긴박했다”고 말했다.

UDT 공격팀으로 해적에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에 진입했던 김 모 중사는 “선교에 진입해 해적을 제압한 뒤 수색 중 선교 모퉁이에 여러 명의 사람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선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김 중사는 “진입 후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입니다. 한국 사람은 고개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외치자 그때마다 모두 안도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면서 “그러나 이때 선원 한 명이 ‘해적이 선장을 죬습니다’라고 하자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장이 총상을 여러 군데 입었지만 의식이 있어서 평소 훈련 대로 지혈을 했다”며 “선장은 선장이 해적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그런 고조를 겪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1등 기관사 손재호씨 목숨 건 기지

### UDT진입 직후 엔진 정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삼호주얼리호의 1등 기관사 손재호(53) 씨가 목숨을 건 기지를 발휘해 청해부대 작전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청해부대 특수전요원은 24일 “손재호 기관사가 청해부대 특수전요원(UDT)들이 삼호주얼리호에 쳐들 진입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기관실로 달려온 엔진을 정지시켰다”며 “납치된 선박이 정선하면서 작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손 씨는 청해부대 구출작전이 시작되자 선교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손 씨는 15명의 UDT 공격팀 가운데 2번팀이 삼호주얼리호 선교로 최초 진입

하면서 “모두 엎드려라”고 고함을 지르며 해적들과 총격전을 벌인 팀을 이용해 기관실로 내달렸다.

당시 기관실에는 선원들이 고개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외치자 그때마다 모두 안도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면서 “그러나 이때 선원 한 명이 ‘해적이 선장을 죬습니다’라고 하자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장이 총상을 여러 군데 입었지만 의식이 있어서 평소 훈련 대로 지혈을 했다”며 “선장은 선장이 해적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그런 고조를 겪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반 총장, 작전 당시 오만에 있었다